

- 1. 종교다원주의 배격
- 1. 동성애 반대
- 1. 차별금지법 반대
- 1. 자유민주주의 수호

제1264호
12월 28일
2024년
토요일

牧羊新聞

총회 상회비 계좌번호 안내

- 국민은행 061701-04-176877
- 예금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 농협 301-0153-7296-01
- 문의 02)2675-5181~3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서울 다-07857 주간 www.mokyangnews.com(목양신문 지면보기 : www.aogk.org) 이메일 : mok2677@naver.com 전화 : 02)2677-9935~7 FAX : 0504)027-0897

땅 끝까지 복음전파 헌신 다짐

2024사이버신학연구원 제8회 사이버목회대학원 제5회 졸업예배



2024학년도 사이버신학연구원 제8회 사이버목회대학원 제5회 졸업예배가 지난 12월 19일(목) 오전 11시 은혜와진리교회 안양성전에서 드려져 땅 끝까지의 복음전파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교단 신학원장 조용목 목사를 비롯 총회장 김영준 목사, 교수진 중진 목회자들과 성도, 축하객들이 참석한 가운데 드려진 이날 예배는 대학원 사무국장

윤기석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신학원 교수 이경진 목사의 대표기도, 신학원 교수 임형순 목사의 성경봉독, 총회장 김영준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고후 5:20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통해 졸업은 새로운 시작이며 특히 사역자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세로 진리의 말씀을 옮겨 분별하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자세로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할 것을 강조하고 사명 감당을 위해 발걸음을 내딛는 졸업생들을 축복했다.

이어 윤기석 목사의 학사보고, 신학원 원장 조용목 목사의 학위수여, 상장수여, 교단 전임총회장 신재영 목사의 축사가 있었다. 신 목사는 축사를 통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주의 종으로서 자기 자신은 죽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사역자들이 될 것을 당부하고 졸업생들의 앞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득하기를 축복하고 축복했다.

이어 교단 전임총회장 김인찬 목사는 권면을 통해 졸업생들에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빛의 열매를 맺는 사역자들이 될 것을 권면했다. 예배는 사회자의 광고, 조용목 목사의 축도로 졸업감사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졸업생들은 그동안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명령이면 부름 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 순종하며 나아갈 것을 다짐했다.



교단 제73차 총회 제8회 임원회

자유민주주의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강화

하나님을 배도하는 WCC·WEA지지 대형교회각성 촉구



김영준 목사
예하성 총회장
갈릴리코스망교회

교단 총회(총회장 김영준 목사) 제73차 총회 제8회 임원회가 지난 12월 17일(화) 오전 11시 울진 갈릴리코스망교회(담임 김영준 목사) 회의실에서 열려 각종 보고와 회무를 처리하고 주요내용 등을 결의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교단 총무 오세준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회계 백영자 목사의 기도, 총회장 김영준 목사의 설교, 부총회장 이인호 목사의 축도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벤전 1:3-4 말씀을 본문으로 '복회자가 찬송해야 할 이유'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공로로 인해 우리는 찬송해야 하며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갖게 하셨으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므로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찾을 수 없는 주님 안에서 산 소망 영생과 부



활의 산 소망이 있음을 감사드리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히 빛나는 기업을 하늘에 간직하도록 하십시오"라고 강조하고 임원들을 축복했다.

부총회장 이인호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곧바로 회의에 들어가 서기 장동근 목사의 회원점명, 총회장 김영준 목사의 개회선언, 총무 오세준 목사의 총무보고 후 재무 최정식 목사의 수입보고, 회계 백영자 목사의 지출보고 사항으로 이어졌다.

결의 및 안건토의사항으로는 교회가입 청원, 교역자가입 청원, 전도사 임명 청원과 교회주소변경, 교역자은퇴, 월로보고, 교회폐쇄 청원, 충남지방회와 중서지방회 신임회원 가입건, 안산시흥지방회, 인천지방회 회무 조윤진 등을 결의 및 논의하고 기타사항으로 사이버신학원 졸업예배, 2025년도 사무예배 및 신

년례행사, 제73차 총회 제3회 실행위원회의가 개최됨을 알리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임원들은 합심기도를 통해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나라의 정치상황이 안정되도록 불의하고 불법한 행동을 멈추고 정쟁이 아닌 정상적인 대화로 소통을 하고, 이 같은 와중에 틈을 노리고 파고드는 종북세력의 자유민주주의의 파괴 행위와 계락을 막아내고 북한과의 자유의 하나님의 역사로 무산되도록,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강화 기조가 조금도 흔들림 없이 견고히 지고 하나님을 배도하는 WCC, WEA와 조직적으로 교류를 갖고 서울총회를 준비하고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는 아직도 정신 못차린 일부 대형교회의 대오각성을 촉구하고 WEA 서울총회를 비롯 일체의 배도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한마음으로 기도했다.



'강박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조용목 목사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박케 됨을 면하라..."(히 3:7~19)

'강박하다'는 말은 성질이 거칠고 고집이 세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성경에는 '강박'이라는 말이 주로 하나님 앞에서의 반항적인 인간의 태도에 대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강박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마음가짐과 행동에 대한 권고이며 명령입니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박케 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과 선지자들에게 하신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구세주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인생들에게 친히 말씀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적은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 자체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하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졌습니디. 성경에서 성경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누면 약속과 명령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듣는 자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명령의 말씀은 듣는 자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믿고 순종하려면 마음이 강박하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박케 됨을 면하라" 하였습니다.

죄의 유혹이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감정과 생각을 앞세우려는 것을 말합니다. 위대한 인물인 모세도 죄의 유혹에 흔들린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있는 잡족들을 따라 이스라엘 자손도 울며불며 토로하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였습니디.(민 11:13,14)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가 아론을 공박하였을 때 모세는 또 한 번 큰 실수를 범하였습니디.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셨다면 그냥 명해야 되는데, 모세는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을 두 번 쳤습니디. 강박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박케 됨을 면하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치해 두시면 우리는 타고난 본성과 죄의 유혹으로 인해 강박함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박하게 됨을 면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겸손히 부르짖어 간구해야 합니다. 또한 죄의 유혹으로 우리 마음이 강박하게 되는 것을 면하기 위하여 성도들은 만나서 서로 권면해야 합니다.(히 10:25)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야 합니다. 여러 봉사모임에 참여하여 피차 권면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강박하게 되지 않도록 권면해야 하고, 권면을 받는 즉시 강박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강박하게 되는 것을 면하기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자손이 범사에 감사하였더라면 마음이 강박하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의 원망이 기본 나뉠지라도 이런 무리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면 그런 큰 실수를 하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백성을 인도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사소한 것으로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처음 믿음, 처음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마음이 강박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지 못할 뿐 아니라 받았던 복과 은혜까지 상실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교만과 탐욕이 들어오게 되니 애굽에서 해방되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가고 있다는 처음의 기쁨과 감격이 사라져 버렸습니디. 그들의 마음이 미혹되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인도하심을 알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 놓았습니다. 그리하여 마음이 강박하게 된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기쁨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은혜와진리교회)

바른 복음전파, 부산 교계 연합 일성

부산기독교총연합회 47회 정기총회 정영진 목사 대표회장에



정영진 목사
교단 임원 역임
갈릴리교회

부산기독교총연합회(부기총, 대표회장 강안실 목사)는 지난 12월 16일(월) 부산 동래중앙교회(담임 정성훈 목사)에서 제47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대표회장에 정영진 목사(순복음갈릴리교회)를 선출하는 한편 부산 교계의 연합과 부산지역복음화를 위해 하나 되어 나가기로 다짐했다.

총회에 앞서 드린 예배는 부기총 대표회장 강안실 목사의 설교로 진행되었다.

강 목사는 민 22:21-29 말씀을 본문으로 '발람과 나귀'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지금 우리가 회복이 더디고 정체되어있는 것은 바로 주의 종들이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이며 한국교회 주의 종들이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은 오직 신앙이 부족해서이다. 발람처럼 물질만능주의에 눈과 귀가 어두워져 이 나라에 이 같은 어려움이 닥쳐오고 있음을 인식하고 큰 교훈으로 알고 새로운 임원

들은 물질이나 권력 앞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대로의 신앙과 삶을 살아가기를 바란다"고 전하고 참석자들을 축복했다.

1부 예배 후 곧바로 이어진 2부 정기총회 회의에서는 감사보고와 회계보고, 사업보고, 신규 임원교체, 감사패 전달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신임대표 회장에 선출된 정영진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부산 기독교총연합회가 47회기를 지내오는 동안 선배님들과 전임회장들의 노고와 마음 깊이 새기고 섬기며 헌신하는 자세로 감명받았다. 올해는 큰 통합이라는 큰 비전을 안고 부기총이 다시 설 수 있도록 부산교계가 모두 총연합하여 함께해 주시길"을 당부하고 기도와 협력을 당부했다. 이어 정 목사는 강안실 부기총 직전회장에 감사패와 이스라엘 손목시계를 선물로 전달했다. 부기총 회원들은 이번 총회에 단순한 연례행사가 아니라 부산 교계의 화합과 방향성을 정립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고 말하고 앞으로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부산 기독교총연합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도자협, 대표회장에 최병두 목사

제49차 정기총회 개최, 자유대한민국 지킨다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이하 지도자협)가 최근 제49차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대표회장에 최병두 목사(예장 통합 증경 총회장)를 선출했다.

신임 대표회장 최병두 목사는 "임기 동안 회원들의 협력과 기도로 지도자협이 한국교회를 향해 바른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시기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대한민국과 위정자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기총회 1부 개회예배에선 최병두 목사의 사회로 황수원 목사(공동회장)의 기도, 강자현 장로(공동회장)의 성경봉독, CBS

실버중창단의 찬양 후, 조일래 목사(기성 증경총회장, 이사)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삼상 16:7)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특별기도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한창영 목사(상임이사), '세계평화와 남북통일을 위하여' 이회두 목사(공동회장), '한국교회와 본회를 위하여' 김사철 장로(공동회장)가 각각 인도했다.

이후 김봉옥 목사(공동회장)의 헌금기도, 유명해 목사(공동회장)의 특송, 한동철 목사(사무총장)의 광고 후 박요한 목사(공동회장)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총회는 김진호 목사(직전 대표회장)의 사회로 김성수 장로(부회계)의 개회기도,

임형국 목사(사기)의 참석회원 보고, 김진호 목사의 개회선언, 한동철 목사(사무총장)의 경과보고, 유경선 장로(감사)의 감사보고, 송성익 장로(회계)의 회계보고, 회칙 개정, 기타 안건 처리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지도자협은 "이날 총회에 참석한 총대들은 어느 때보다 힘든 탄핵 정국에서 특히 민심을 분열하는 어둠의 세력들에게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며 "우리 모두의 소중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깊이 회개하고 기도할 때"라고 다짐했다.

한편 지도자협은 내년 1월 8일(수) 오전 11시 서울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예홀에서 신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서기총 "반성경적 사상에 저항"

제20-4차 실무회의 개최 고유번호증 받아... 내년 2월 총회

서울시 성시화를 위해 활동 중인 서울시 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심하보 목사, 이하 서기총)가 지난 12월 16일(월) 서울 은평제일교회에서 제20-4차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임원들은 최근 비영리법인으로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아 관할 세무서에 등록을 완료했다고 보고했다. 또 내년 2월 정기총회에서 조직을 확대·보완해 주요 사업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대사회적 목소리도 높여 나갈 방침이다.

1부 예배는 사무총장 노근재 목사의 사회로 공동회장 최상운 목사의 기도, 전임대표회장 원성웅 감독의 설교, 실무회장 장동우 목사의 통상기도, 대표회장 심하보 목사의 축도 순으로 진행했다.

서기총은 그간 반기독교 세력에 대응하며 동성애 반대, 마약 퇴치, 저출산 지원 대책 마련에 협력해 왔다. 이와 함께 17개광역시



기독교연합회,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등과 연대해 힘을 실어주고 지원하는 사역을 펼치고 있다.

대표회장 심하보 목사는 "나라를 위해 함께하면서, 우리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며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일에는 프로테스탄트 입장에서 적극 나서겠다"고 밝히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일

에도 끝까지 힘을 것"이라며 "한미동맹만 유지되면 공산주의로 가지 못한다. 앞으로 탄핵 반대를 위해서도 나서겠다"고 말했다.

심 목사는 "반성경적·반기독교 사상에 대한 것은 언제나 저항해야 한다"며 "국가적으로 어려움이 왔을 때는 기도도 하지만, 잘못된 것은 옳고 그름에 대해 당당하게 말하는 서기총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북한, '종교인=간첩'으로 몰아가

사상교육용으로 의도치 않게 보관한 듯

북한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체포된 북한 지하교인 두 사람의 이야기가 이번 달 KBS에서 입수한 북한의 군사 교육 영상, '종교인=간첩' 몰아가는 북한... '종교가 수령 절대 숭배 허물어'에 기록되어 있다.

순교자의 소리(Voice of the Martyrs Korea) 현숙 폴리 대표에 따르면, "이 영상은 북한 정부에서 수년간 사상 교육용으로 제작한 몇 편의 영상 가운데 하나이지만, 의도치 않게 북한 지하교인에 대한 기록을 보존하고 있다. 이 영상이 없다면, 그 안에 담긴 기독교인의 이야기는 영원히 잊히거나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숙 폴리 대표는 "북한 정부가 사상 교육용으로 제작한 이 영상은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며, 기독교를 가장 극악하게 핍박하는 북한 정부를 통해서조차 북한의 기독교 역사와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보존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 영상이 북한 내부에서 유통되고 있는 일부 기독교 자료에 대한 시



각적 증거를 제공해 준다"라고 말했다.

이어 "KBS에서 입수한 이 최신 훈련 영상이 2018년에 순교자의 소리에서 확보한 영상과 유사하다. 순교자의 소리에서 2018년에 확보한 영상은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북한 순교자 차덕순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으로, 그 이야기는 북한의 보위부 요원을 교육하기 위한 영상, 즉 북한 내부의 기독교 지지자를 식별하고 침묵시키는 방법을 훈련하기 위한 영상에 보존되어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계속해 "순교자의 소리가 2018년에 입수한 보위부 요원 교육용 영상에는 중국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뒤에 한국으로 탈북하지 않고 북한으로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차덕순 전도자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최근 KBS에서 입수한 영상에 나오는 기독교인 두 명과 마찬가지로"라며, "이러한 영상이 예수님을 신실하게 증거했다는 이유로 순교한 북한 지하교인들의 이야기를 보존하고 확산 시키는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하나라고 믿고 있다"라고 밝혔다.

현숙 폴리 대표는 끝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고 말한다. 우리는 복음을 확산시키고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일에 오직 기독교인만 쓰임 받을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인류 역사 최악의 박해자들까지도 사용하여 지구상에서 가장 폐쇄적인 나라 내부에 말씀을 확산시키고, 은혜와 자비의 이야기를 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북한 정부에서 제작한 이러한 교육 영상을 통하여 보여 주신다"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기감-필리핀 열방선교교회, MOU 체결

김정석 감독회장, "선교지의 자산은 개인의 자산이 아닌 공공의 자산"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기감) 김정석 감독회장은 지난 12월 4일(수) 오후 4시 필리핀 열방선교교회(이하 ANMC: All Nations Mission Church)를 방문해 선교지 시설을 돌아본 후 선교지 자산의 관리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날 이뤄진 양해각서 체결식은 기감과 필리핀 ANMC 간에 '상호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선교지 자산의 관리와 활용에 관한 사항에 관해 준수할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체결식에는 총청년회 박인오 감독과 김신대 총동문회장 김필수 목사(군산비전교회), 호



남북별연회 직전감독)를 비롯해 김신대 장성배 교수(선교학), 아펜젤러세계선교센터장 이상훈 목사, 감리회세계선교협의회 총무 이도성 목사, 행정기획실 기획홍보부 황

기수 부장이 함께했으며, ANMC 대학생 기수사를 헌납한 부산 은누리교회 박성수 목사와 총청년회 소속 목회자들, ANMC 사역을 오랫동안 후원해온 목회자들이 동행했다.

또한 ANMC에서 동역하는 선교사들과 현지인 리더들도 함께해 역사적인 순간을 기념했다.

김정석 감독회장은 서명을 마친 '양해각서'를 교환한 후 인사말을 통해 "이번 사례를 계기로 선교사들이 떠날 때 귀한 선교지의 자산들이 공적재산, 곧 공공재산으로 인식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발달장애아동 발전 위한 토론회 개최

발달장애 예술교육의 발전과 미래 논의

(사)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중앙회(이사장 최광열/이하 국협)와 서미와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사)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중앙회, 펠리체예술단 주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후원한 '발달장애 예술교육의 발전 방향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12월 13일(금)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토론회는 발달장애 예술교육의 발전을 위한 토론회로, 총 4명의 패널이 참여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으며, 문화예술계 전문가, 전문가, 학계 연구자 등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문화예술의 발전과 지속 가능성을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먼저 이희연 교수(경인교육대학교 특수

(통합)교육학과)는 '발달장애 아동의 공공교육에서 예술교육의 필요성', 이동희 교수(경인교육대학교 음악교육과)는 '발달장애 아동의 음악교육을 위한 비장애인 교사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 이보람 교수(단국대학교 산업협력융합대학 초빙교수)는 '발달

장애 학생 음악 입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필요', 고수민 강사(국정협 찾아가는 장애인문화예술학교)는 '발달장애 학생 예술교육 현장 사례와 예술교육의 효과'를 발표로 총 4개의 세션으로 구성되며, 각 세션마다 관련 전문가들의 발표와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선목인의 날' 성탄감사, 선교비전대회

한 해를 돌아보고 미래 향한 전진의 디딤돌 마련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선목)총회(총회장 김국경 목사)는 12월 10일(화) 오후 6시 서울시 중랑구 동일로 소재, 목양교회(김국경 목사 사무)에서 '선목인의 날' 성탄감사에 빛나는 선교비전대회를 열고 그동안의 노고를 위로하고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는데 주심께로부터 새 힘을 충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류인각 목사(총회 직전 총무)의 사회로 시작된 1부 예배는 부총회장 김종열 목사의 대표기도, 선목선양단의 찬양, 총회장 김국경 목사의 미 5:2 말씀을 본문으로 메시아의 탄생 예고와 성취'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진행했다.

김국경 목사는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작은 고을, 그것도 모자라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지만 우리에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주신 것도 거대한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셨음을 감사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부총회장 유영자 목사의 축도와 총무



유진선 목사의 광고, 김국경 목사의 참가자 소개가 있었다.

김 목사는 김재덕 목사(초대교회, 강북노회)와 윤자현 목사(우리동네교회, 강북노회), 서미숙 목사(살롱교회, 중앙노회)가 선목총회로 가입했음을 알리며 환영했다.

2부 선교비전대회는 회록서기 안영모 목사의 사회로 총회 감사 박경순 목사의 지휘하

래 교가제창과 박종만 목사의 선교비전대회 개최기도가 있었다. 김국경 총회장은 이날 새 축복교회 최승환 목사(임마누엘교회) 최철경 목사, 김은성교회 마경영 목사, 하나예술교회 최은희 목사, 진리대교회 김택자 목사, 셀디자이너교회 박재석 목사, 조연재 선교사(박찬봉 목사 장남)에게 각각 목회격려금을 전달했다.

예성, 홀리콰이어부부합창단 연주회

수익금은 성결대 장학금으로 전달 예정

2024년도 한해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예수교대한성결교회(총회장 김만수 목사) 소속 단체인 예성 홀리콰이어부부합창단(단장 박광일 목사, 지휘 서기호)이 지난 12월 10일(화) 오후 7시 30분 안양교회(강대일 목사 시

무) 시온성전에서 제2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했다. 이날 합창단 총무 김영국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연주회에서는 단장 박광일 목사의 환영인사와 함께 박천영 목사의 오프닝 앙락 나팔 연주로 무대의 막을 열었다.

총 3부 순서로 마련된 금년 연주회에서는 1부는 복 있는 사람은, 사도신경, 분향을 향하여 합창과 총회장 김만수 목사의 축사, 예성 사모합창단의 찬조출연, 성결대 총장 김나팔 연주로 무대의 막을 열었다.

2부는 도라지꽃, 인생, 꿈따리 사바라, 예성 장로합창단 찬조출연, 3부는 주님 만드신 세상, 다시 복음 앞에, 시온성, 일어서게 하소서, 축복 등이 발표됐다. 현재 합창단 단원교회는 모두 27개 교회이며, 합창단 측은 "이번 정기연주회를 통한 수익은 성결대학교 장학금으로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교연 "한국교회, 말씀으로 하나되자"

제14대 김노아 대표회장 취임...한기총, 한교총과 통합 지속 추진

한국교회연합(한교연)은 지난 12월 12일(목) 오후 1시 서울 관악구 숭발로 소재 세광중앙교회 대성전에서 '대표회장 김노아 목사 취임 감사예배'를 드렸다.

예배는 한교연 상임회장 김바울 목사의 사회로 상임회장 홍정자 목사의 기도, 기침전임총회장 오관석 목사 수 1:1-7 말씀을 본문으로 '너는 더불어 일어나라'란 제목의 설교 순으로 진행했다.

직전 대표회장 송태성 목사는 권면을 통해 "한국교회연합의 소명은 연합과 일치에

있다. 모든 회원교단과 단체를 아우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연합 사역에 매진하길 바란다. 회원의 권의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길 바란다"며 기대를 나타냈다.

예장총연 대표회장 이광용 목사는 격려사를 통해 한국교회가 직면한 여러 도전들을 언급하며, 한교연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했다. 전 기독대 총장 이강평 목사는 김노아 목사의 리더십으로 한국교회의 통합과 대한민국의 화합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전 연합신학대학원대학교 총

장 예영수 목사는 김노아 목사의 리더십으로 한국교회의 통합과 대한민국의 화합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을 바랐다.

이밖에도 한국기독교인법인 강준오 이사장, KSU신학대학교 김향주 총장, 한민족선교협 이종만 총재 등의 교계 인사가 축사와 격려사를 통해 취임을 축하했다.

김노아 목사는 취임사를 통해 "지금의 한국교회가 갈갈이 찢어졌다. 그런데도 모든 교회를 마다 다 주를 사랑하고 서로 합자고 한다. 한국교회의 분열은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하는 데서 문제가 생겼다"고 전하고, "한교연 대표회장으로 먼저 자신을 낮출 것이다. 낫출 수 있을 만큼 낮아질 것이다. 한교연이 한기총과 한교총과의 통합이 된다면 저는 언제든 물러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밝혔다.



생명의 말씀

2025년 그리하면 살리라!

암 5:4~14



백영자 목사

- 교단 회계
- 전라지방회장
- 녹동순복음교회 담임

새해가 되면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을 기대 하지만 사실은 아무 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증세이다> 라고 했습니다.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 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안 하는 사람은 있어도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해 보면 됩니다.

1.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4, 6절)

간절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피그말리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피그말리온이 돌을 가지고 아름다운 여인을 조각해 놓고 날마다 바라보며 사랑했습니다.

이 모습을 안타깝게 여긴 아프로디테가 생명을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여인 갈라테아 아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것을 두고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부릅니다.

누구든지 정말 간절해지면 하나님을 찾아옵니다. 방탕한 아들도 죽을 지경이 되자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눅 15:17). 혈무증으로 죽게 된 여인(마 9:20)과 딸이 죽게 된 회당장 아이로(막 5:22)와 종을 살리기 위해 백부장(눅 7:2)도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지병을 앓고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갔던 친구들도 있었습니다(눅 5:19).

간절해지면 2025년은 새로운 한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한 과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눅 18:7-8)

2. 지혜자의 말을 들으라 그리하면 살리라(13절)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지혜란 원인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아하- 그래서 그랬구나”하고 깨닫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이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욘 28:12-13), “그러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이고”(욘 28:20),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욘 28:28). 욘은 고난당할 때 “아하-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는구나”(욘 23:10)하고 깨달았습니다. 깨닫고 나면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는 과정이 됩니다(시 23:1).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하시면 그런 줄로 믿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 염려하지 않았고(골 4:6-7),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딤후 1:7).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식은 자처할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식이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고전 4:10) 믿

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습니다(행 3:6-7).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와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잠 19:21).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환자는 자기 생각이 있어도 의사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순종하면 바다에서는 길이 열리고(출 14:16) 광야에서는 샘이 솟아납니다(민 20:11).

3. 선을 구하라 그리하면 살리라(14절)
어릴 때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내 눈에 피눈물이 난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시던 어머니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암 5:12), “공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공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공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약 2:13). 2025년은 착하게 살기로 다짐해야 합니다. 극심한 고난을 당할 때 이유를 모르면 가슴이 터질 정도로 답답합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단 12:10)

야모스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 남유대와 북이스라엘은 어느 때보다 풍족한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네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할지어다”(암 5:23-24). 예수님을 몰랐을 때에는 아담 속에서 살았지만 빛의 자녀가 되었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엢 5:8-9).

안디옥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그들이 교회에 일 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행 11:26), “바나베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행 11:24). 착한 사람 바나베는 안디옥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바나베는 사울편에 살았던 나사로 함께 구브로 섬에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여 그곳에 무덤이 있습니다. 바나베는 순교하여 죽었으나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히 11:4). 바나베의 착한 행실은 사람을 살리는 향기가 되어 사방으로 퍼져 나갔습니다(고후 2:16). 너희가 살려거든 그리하라는 말씀을 따라 2025년 모든 교회가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정

정영진 목사 한국교회의 밤 초사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개최한 ‘2024 한국교회의 밤’ 행사가 지난 12월 20일(금) 저녁 롯데호텔서울 크리 스타볼룸에서 열렸다. 이날 부산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정영진 목사(갈릴리교회)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일어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다. 한국교회가 일어서면 대한민국이 일어서게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김영한 박사, 2024성탄절 논평



살림을 꾸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살림나비)이 2024년 성탄절 논평을 발표했다. 살림나비는 “성자의 성육신을 기억하는 진정한 성탄 축하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기뻐하는 것”이라며 “성탄절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임을 명심하자”고 했다.

김지연 대표 마약문제 특강



경남 창원 지역 ‘청소년 마약문제 현황과 대책 부모특강’이 지난 12월 17일 오후 3시 창원시체육회 협의회 사회여성분과위원회 주최 및 주관으로 열렸다. 청소년과 학부모, 교육기관, 청소년 센터 등을 대상으로 열린 이번 특강에는 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이자 코야드 코리아(COYARD Korea) 대표인 김지연 대표가 강의했다.

직장선교연합 이사장에 오광석 장로



한국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한직선)가 지난 12월 14일(토) 제44차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이사장에 오광석 장로(세원장로교회 시무장로)를 선임했다. 오광석 신임 이사장은 이날 “앞으로의 임기 동안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며 연합회의 비전과 사명을 더욱 확고히 하고, 모든 회원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논평 한국교회연론회

격랑(激浪)정치, 격동(激動)시대, 격견(格見)이 필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2주일이 되었다. 그런데 이 이전과 이후는 엄청난 격랑(激浪)이 몰아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지금 백가쟁명(百家爭鳴)이다. 2주일 사이 너무나도 많이 변했다. 대통령은 ‘중복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하여 계엄을 선포했다’고 했는데, 지금은 탄핵이 국회에서 통과 되어 헌법재판소에 올라가고 수사의 대상이 되고, 사상 초유로 ‘출국금지’까지 당하고 있다. 또 검찰과 공수처와 경찰은 서로가 경쟁하듯 대통령을 잡겠다고 한다. 그런 막강한 권력들이 다른 유력한 정치지도자들에 대한 수사는 왜 지지부진했을까?

어른 조사 결과,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의 탄핵을 지지한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누가 대통령이 될까? 2024년 대학교수 1,086명이 뽑은 올해(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전에 조사됨)의 사자성어는 ‘도량팔호’(跳梁跋扈)이다. 이는 ‘권력이나 세력을

함부로 부리고 날뛴다’는 뜻이다.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우리는 지난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하여 깊은 상처를 안고 있다. 그때 당시 가장 앞장서 대통령 탄핵을 외친 사람이 가장 큰 수해를 받은 것을 우리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현 대통령의 임기가 절반가량 남은 상태에서 한국 정치는 다시 대통령 탄핵의 분위기로 들어갔고, 정말 탄핵이 이뤄진다면, 온갖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수해자가 될 상형이다. ‘세계 속에 한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짧은 시간에 두 명의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국가 체제는 급격히 바뀔 것인가?

우리 국민들이 격변의 시기에 지도자를 잘 못 세우면 사회주의로 갈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70년 전 해방을 맞았을 때에 하며던 사회주의 국가가 될 뻔했다. 이것을 미국에서 자유민주주의를 공부하고 돌아온 초대 이승만 대통령에 의하여 저지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주의를 획책하는 사람들이 있다.

20세기 영국의 유명한 자유주의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사회주의 허구성을 간파했는데,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국가들은 완벽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유혹에 빠져 중국에는 수많은 사람의 자유를 희생시켜, 노예가 되는 길로 나가게 된다’고 경고하였다.

우리나라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가 무너지면 필연코 사회주의가 될 것이고, 결국 국민들은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사회주의는 처음에는 ‘공짜’와 ‘무상분배’로 국민들을 유혹한다. 공짜가 정말 공짜일까?

20세기 미국의 세계적인 경제학자이며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밀턴 프리드먼은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내가 받는 공짜는 누군가의 피눈물의 결정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정의하였다.

오늘의 한국 정치를 보고, 한 원로 언론

학자는 ‘반대편의 증오를 필요로 하는 대상’이라는 걸 입증하기 위하여 악마화를 시도하면서, 자신의 증오와 혐오를 정당화한다고 분석하였다. 상대방을 악마화하지 않고는 권력을 잡기도, 유지하기도 어렵게 된다. 그것이 과연 바른 정치요, 선진정치라고 말할 수 있을까?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탄핵’ 문제로 인하여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외교와 안보, 국가신인도 등이 떨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오직 ‘탄핵 일방통행’을 멈추지 않고 있다. 그러나 막상 탄핵이 이루어져,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다고 하여도, 그것이 곧 국가 발전과 국민들의 삶이 행복해질 것인가는 장담하기 어렵다. 자칫하면 ‘노예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노예의 길을 좋아하거나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 오직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왔고 그 혜택을 누리며 살아왔다. 이

제 또다시 국민들이 깨어 일어나 결정해야 할 시기가 올 수도 있다. 그것은 국민들의 주권이며, 바른 선택을 해야 할 의무이며, 또한 책임이 따른다. 그리고 일말의 희망을 거는 것은, 사법부의 양심과 정의가 살아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삼권분립이 분명하게 존재하는 대한민국에서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기를 바란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특정 정파의 주장에 휩쓸리지 말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며, 하늘의 능력을 끌어들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한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 이 나라에 안정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국민들을 위하여 정치인들에게 권세와 권력을 더 주셨고, 또 그에 따른 심판도 엄하게 하실 것이다.

지금 격동의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 모든 국민들은 격견(格見-품위와 격에 맞는 의사 표현)으로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정치의 격랑 가운데에는 기독교인들이도 상당수 있다. 그들이 국회에서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따르기를 바란다. 한국교회도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국가 위기를 헤쳐나가는 데 앞장 서야 한다.

성탄절 메시지

“예수님은 이 땅의 평화를 위해 오셨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눅 2:14)

올해 성탄절은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탄핵을 둘러싸고 반목과 질서가 극에 달했습니다. 국민 모두가 현재 처해 있는 위치에서 서로를 통합하는 기지를 발휘하여서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해 사랑과 평화의 길로 나가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평화를 위해 오셨습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켜 화평하도록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룩한 사람의 삶의 증거는, 그가 머무는 곳마다 평화가 있게 됩니다.

은 인류의 죄를 사해주시기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 참 사람의 모델로, 하나님께는 영광, 땅 위에는 평화를 위해 오셨습니다. 이를 이루시고자 구유에 탄생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섬기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하셨습니다.

성탄절을 맞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본을 보여주는 삶을 본받고자 다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25일
(사)한국기독교교단협의회
대표회장 정덕화 목사

임원명단

- | | |
|----------------------|-------------------------|
| △고문: 조용목 목사(예하성) | △대표회장: 정덕화 목사(예장합동보수진리) |
| △고문: 최보기 목사(기침) | △상임회장: 한성복 목사(예장합동보수총회) |
| △고문: 배기은 목사(예장호헌) | △회장단: 회원교단 22인 총회장 |
| △고문: 배진기 목사(예하성) | △사무총장: 김용도 목사(기침) |
| △고문: 이준원 목사(예장합동총신측) | △서기: 박찬목 목사(예장합동보수) |
| △고문: 김상용 목사(예하성) | △부서기: 김동민 목사(예장동신) |
| △고문: 최상열 목사(예장동신) | △회계: 권오성 목사(예장연합오순절교회) |
| △고문: 윤덕남 목사(기침) | △부회계: 박태영 목사(예장개혁진리) |
| △고문: 임종달 목사(예하성) | △감사: 이상익 목사(예장연합오순절교회) |
| △고문: 이용주 목사(예하성) | △감사: 구쌍희 목사(예장개혁합동) |
| △고문: 정부용 목사(예하성) | |

가 입 교 단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총회장: 이음 목사, 총무: 김일업 목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교회총회
총회장: 김영준 목사, 총무: 오세준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진리)총회
총회장: 배재한 목사, 총무: 이상용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호헌)총회
총회장: 도용호 목사, 총무: 오갑수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보수진리)총회
총회장: 정덕화 목사, 총무: 최달업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신측)총회
총회장: 최철호 목사, 총무: 윤영숙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합동)총회
총회장: 김해숙 목사, 총무: 김종숙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보수)총회
총회장: 한성복 목사, 총무: 유종근 목사
대한예수교연합오순절교회총회
총회장: 강문중 목사, 총무: 권오성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동신)총회
총회장: 최상열 목사, 총무: 김동민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성목총회
총회장: 이윤숙 목사, 총무: 최천봉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천점수 목사, 총무: 안효영 목사
대한예수교오순절하나님의교회총회
총회장: 최병찬 목사, 총무: 오희대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수도)총회
총회장: 오용자 목사, 총무: 한정희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은혜)총회
총회장: 김태진 목사, 총무: 강임순 목사
한국HIM선교총회
총회장: 홍정식 목사, 총무: 박호중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진리총회
총회장: 박태영 목사, 총무: 김은실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푸른빛)총회
총회장: 김희기 목사, 총무: 김영철 목사



사단법인 한국기독교교단협의회
THE COUNCIL OF CHRISTIAN DENOMINATIONS IN KOREA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4길5
TEL : (02) 786-1601~4, FAX : 782-8095
http://www.ccdk87.com, ccdk87@komet.net

새신자 정착프로그램 오순절 성령비전캠프

제주지방회

제주지방회(회장 안재홍 목사) 제주한마

음교회(담임 김건수 목사)에서는 지난 12월 12일(목) 저녁-14일(토) 오전까지 2박 3일에 걸쳐 새신자 정착프로그램인 오순절 성령비전캠프를 진행했다.

제주한마음교회에서 22명의 게스트(신청자가 참가한 가운데 천안순복음침례교회는 교회(담임 안병찬 목사)에서 섬김이 37명이 제주도에까지 직접 찾아와 강의, 조장, 부조장, 시사, 프로그램 진행까지 행사경비 일체를 준비해서 섬겨주었다.

이날 성령비전캠프 프로그램은 ①전지창조→②타락→③삼자가의 도→④보혈의 능력→⑤변화 받는 삶→⑥삼처치유→⑦영적전쟁→⑧영혼구원→⑨비전→⑩성령대항회→⑪파송의 순서로 진행 된 단계별 과정을 통해 참가자들이 큰 은혜를 받았고 뜨거운 성령체험의 시간을 통해서 진리의 복음전파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충만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다.



월례회 및 송년회 개최하고 순종하는 목회 다짐

경기지방회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며 빛의 역할을...

경기지방회(회장 안재홍 목사)는 지난 12월 15일(주일) 오후 4시 드림교회(담임 조광현 목사)에서 12월 정기월례회 및 송년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지방회 총무 조광현 목사의 사회로 시작해 서기 윤진철 목사의 대표기도, 재무 이동욱 목사의 성경봉독, 전임회장 김종연 목사의 설교, 회계 김경순 목사의 헌금기도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마 5:13 말씀을 본문으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목회자가 세상의 소금으로서 그 맛을 잃지 않아야 하며, 부패를 방지하는 방부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또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며 세상의 빛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회원들을 축복했다.



예배를 마친 후 곧바로 정기월례회로 이어져 각종 회무를 처리했다. 또한 한 해를 마무리하며 드림교회(담임 조광현 목사)에서 정성껏 준비한 만찬을 함께하며 즐거운 교제를 나누었다. 모든 식사의 시간이 끝난 후 2부 순서로 율리기도 하고, 선교사님들을 돕기 위한 선교바자회도 진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되었다.

한 권의 책으로 장병들에게 군부대에 도서보내기운동 전개 장래의 꿈을!

그 선교위원회(위원장 박순용 목사)에서는 국토방위에 여념이 없이는 장병들을 위해 군부대에 도서보내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TV, 컴퓨터, 스마트폰으로 정서가 메말라가고 게임중독 등으로 이기적 삶의 형태로 변화하는 신세대 장병들에게 이러한 기회들을 멀리하고 책과 함께 함으로 정서함양과 협동심, 사회성, 희생정신과 봉사 의식을 일깨우는 중요한 방법이라 생각되어 도서보내기운동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내용의 책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장병들에게 평안과 위로, 안식과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종교서적-설교집, 신앙잡지, 설교 테이프, 찬양 테이프, QT 책 등-군생활 속에서 장래의 꿈을 심어 줄 수 있는 책과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관련서적,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등의 요리서적, 경제 및 건강관련 서적, 소설로 된 역사책 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새 책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우리 장병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무심코 지나쳤던 책들이 있으면 장병들을 위한 사랑의 마음으로 챙겨 보내주시면 귀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보내주신 한 권의 책이 이기적이었던 신세대장병들을 동료로 내 몸처럼 아끼고 배려할 줄 아는 선한 이웃으로 변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군선교위원회
군선교위원장 박순용 목사 (010-9720-1603)

선교지에서 온 편지- 태국 // 김학봉 · 서미식 선교사 드림

싸왓디캅!! 한해동안도 선교를 위해 도움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2024년도 한 해 동안 선교현장에 이루어 주신 여러 일들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후원교회와 목사님들, 그리고 개인후원자님들의 신실한 후원에 올 해도 주님의 일꾼으로 선교현장에서 맡겨주신 일들을 이루는 일에 쓰임 받게 됨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반부야교회 모든 공사 완료
1년 여 동안 진행되었던 모든 공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도움시 가운데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우

기 때마다 질퍽거리는 길로 인해 교회 진입에 불편함이 적지 않았었는데, 진입로와 교회 주변 콘크리트 포장 작업이 완료되었고, 지질 성분으로 인해 반복적으로 페인트가 벗겨지는 내외벽에 타일을 붙이는 작업도 완료되고, 어린이 놀이터 놀이기구 설치도 마치고, 남아 있던 축구장과 지붕과 천정 교체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교회 앞 풋살 축구장 건립에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약속했던 업자가 여러 이유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아서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하던 중에 함께 하는 목회자들(TAM/Thailand Antioch Mission 개

척된 7개 교회)와 공사를 진행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지난 11월 11일부터 16일까지 한 주간 함께 먹고 자면서 공사를 진행하였고, 생각보다 공사가 쉽지 않고 일이 많아서 한 주간 쉬었다가 11월 25일부터 30일까지 나머지 2차 공사를 진행하여 마침내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6개교회 목회자 부부와 저희 부부도 뜨거운 날씨에 정말 열심히 힘을 모아서 각각의 역할을 잘 했습니다. 축구장과 지붕 전면 교체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는데, 감사하게도 목회 전에 건축업을 한 목회자

도 있었고, 개척교회를 돌보면서 쌓은 건축 노하우가 있어서 다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분야에서 손발을 맞추어 대공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붕을 교체할 때는 이미 지붕을 절반이나 철거한 상태였는데 때 아닌(태국은 현재 건기) 먹구름이 몰려오고 빗방울이 떨어지자 다들 마음으로는 간절히 기도하고 손발은 부지런히 낚고 먼지나 슬레이트를 철거할 뿐이었습니다. 급히 필요한 자재가 있어서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나가는데 엄청난 비가 쏟아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 속에 기도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어 안타까웠습니다. 자재를 구입하고 돌아오니 교회 주변에는 빗방울이 잠시 떨어지고 멈춘 상태였다고 하였고, 다른 곳은 비가 많이 왔다는 이야기를 서로 들으며 모두들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내는 공사를 위해 수고하는 목회자 부부를 위해 김치와 갈비찜과 감밥 등 한국 음식을 준비해 주었는데 K-Food 영향으로 태국인들도 한국 음식을 좋아해서 다들 즐거운 가운데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홈페이지 : www.ucts.org

A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25학년도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연합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론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의식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넷)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확정을 취득함으로써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학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명의식이 있는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에서 편입하는 자는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2. 제출서류(각 1통)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⑤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⑥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①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② 서류심사 및 면접 : 수시
③ 전형료 : 20,000원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금주 사이버신학연구원)

4. 접수방법
①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① 졸업 후 전도사 임명자격 부여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 02)2678-5181 e-mail :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http://gd.ucts.org

A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목회대학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25학년도 사이버목회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단법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써 교단 소속 사역자가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히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적
본 대학원은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이론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점차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버너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자질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 원훈
말씀충만, 성령충만, 목양일념, 온 세상 만민에게 복음전파.

문의처 및 주소
● 문의처 : 02)2678-5181 FAX: 031)944-5181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양평동5가 90-3) 사이버목회대학원 교학처 (우)07205
http://gd.ucts.org, e-mail : ucts5181@naver.com

1. 모집학과 및 지원 자격

학과	과정	수업연한	지원자격
목회학 석사 (M.M/Master of Ministry)	3학년	3학년	● 본 교단 소속의 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 신학교 졸업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의 동시 허락을 받은 자

2. 전형 방법 : 서류 전형 및 면접
3. 전형일정 ① 원서 교 부 : 수시 ② 원서교부처 : 본 대학원 행정실 본 대학원 홈페이지 ③ 원서 접수 : 수시 ④ 합격자 발표 및 합격자 등록 기간 : 개별통보
4. 전형료 ① 전형료 : 30,000원 ②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5.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최종신학교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추천서(소정양식) 1부 - 반명함판 사진 1매
- 주민등록등본(2개월 내 발급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혼인사실관계) 1부
- 목회자 소속, 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

6. 특전 및 기타사항
-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aster of Ministry/교단인정) 학위를 수여하며 교단 목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 홈페이지에 업로드 됨.
-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유효하고 도덕 그리고 성품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합격 발표 이후에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대학원 http://gd.ucts.org 에서 출력 작성 후 E-Mail, 혹은 우편으로 접수 가능.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하나님을 배도하는 WCC·WEA 경계, 민족복음화 사명감당 다짐

(사)충남민족복음화운동본부 대표회장 진등용 목사 취임 및 임원위촉예배

사단법인 충남민족복음화운동본부



대표회장 진등용 목사

사단법인 충남민족복음화운동본부 대표회장 진등용 목사 취임식 및 임원 위촉예배가 지난 12월 12일(목) 오전 11시 공주 리버스컨벤션에서 열려 나라와 민족이 어려울 때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50여 성사를 지내으며 외쳤던 복음의 메아리가 열매를 맺어 나라가 눈부신 발전을 보았다. 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어려울 때마다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 역사하시며 이에 감사드리고 충남지역 조직을 새롭게 개편하고 제2의 부흥을 위해 도약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 앞서 드려진 1부 예배는 대표본부장 오종설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대표회장 진등용 목사의 환영사, 회계 함동주 목사의 기도, 서기 김동현 목사의 성경봉독, 민족복음화운동본부 총재 이태희 목사의 설교, 손보라 목사의 헌금 찬양, 제1 부사무총장 김석중 목사의 광고 순으로 이어졌다.

이태희 목사는 행 1:8 말씀을 본문으로

“네 민족을 구원하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복음화운동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바른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 특히 민족복음화운동을 전개하는 우리 부흥사들에게 있다. 하나님을 배도하는 WCC·WEA 등으로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살려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위촉 받는 모든 분들 귀한 사명을 소명으로 알고 성실히 충성스럽게 감당해 줄 것”을 당부했다.

2부 취임식 및 위촉식은 상임본부장 안준호 목사의 사회로 총재 이태희 목사가 대표회장 진등용 목사에게 취임패를, 대표본부장 오종설 목사에게 위촉패를, 상임본부장 안준호 목사에게 위촉패를, 실무본부장 김병목 목사에게 위촉패를 각각 수여했다.

이어 총재 이태희 목사는 충남 15개 시군 대표회장 위촉패를 수여했다. 천안시 대표회장 안익상 목사, 아산시 대표회장 김병완 목사, 당진시 대표회장 우경식 목사, 서산시 대표회장 최정희 목사, 태안군 대표회장 김중남 목사, 예산군 대표회장 백돈걸 목사, 홍성군 대표회장 함동주 목사, 서천군 대표회장 전용호 목사, 청양군 대표회장 김동원 목

장 진등용목사 취임식 및 임원위



사, 부여군 대표회장 방요길 목사, 공주시 대표회장의 김석중 목사, 논산시 대표회장 김인호 목사, 금산군 대표회장 신동성 목사, 계룡시 대표회장 임광규 목사에게 각각 위촉패를 수여했다.

이어 대표회장 진등용 목사는 고문 감사 추대패 및 충남본부 임원에게 위촉패를 수여했다. 고문 박중서 목사 정진모 목사, 감사 이성수 목사 강진정 목사, 사무총장의 김진태 목사, 제1 부사무총장의 김석중 목사, 제2 부사무총장 최연범 목사, 서기 김동현 목사, 부서기 박인규 목사, 회계 함동주 목사, 부회계 이재웅 목사에게 각각 위촉패를 수여했다.



충남 15개 시군 대표본부장에게도 위촉패를 수여했다. 천안시 대표본부장 안병찬 목사, 아산시 대표본부장 김수홍 목사, 당진시 대표본부장 김성환 목사, 서산시 대표본부장 소대영 목사, 태안군 대표본부장 김형철 목사, 예산군 대표본부장 김영복 목사, 홍성군 대표본부장 이문용 목사, 서천군 대표본부장 한철희 목사, 공주시 대표본부장 이재웅 목사, 논산시 대표본부장 박인규 목사, 금산군 대표본부장에 이재우 목사, 계룡시 대표본부장 심영섭 목사, 부여군 대표본부장 전이현 목사에게 각각 위촉패를 전달했다.

제3부 축하예식은 실무본부장 김병목 목

사의 사회로 대표회장 진등용 목사의 취임인사 온양 은혜와진리교회 성도들의 꽃다발 증정, 권병수 목사 외 이태희 찬양팀의 축하, 충남도지사 김태흠 지사의 축하, 충남기독교총연합회 회장 최화정 박귀환 목사의 축사, 사단법인 민족복음화운동본부 총재 신석 목사의 축사가 각각 있었으며 충남민족복음화운동본부 고문 정진모 목사의 격려사, 충남성서교회 대표회장 최태순 목사의 격려사, 사무총장 김진태 목사의 내빈 소개, 충남민족복음화운동본부 고문 박중서 목사의 축사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이날 진등용 목사는 취임 인사말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경제 선진국 10위권으로 군사력 6위를 자랑하는 대국으로 성장했다. 신역군 총재에 이어 이태희 2대 총재계에서도 민족복음화운동을 전개하므로 온 땅이 복음의 물결이 넘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2027년 8000만 복음화사회를 준비 중에 있는바 최선을 다해 속해 있는 지역에서 맡은바 소임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것을 다짐했다. 아울러 충남 민족복음화운동본부도 각 시군 임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충남복음화에 기여하고 민족복음화에 기여하는 단체가 될 것을 다짐했다.

사단법인 충남민족복음화운동본부

대표회장 진등용 목사	고문 박중서 목사	고문 정진모 목사	총대대표회장 진등용 목사	대표본부장 오종설 목사	상임본부장 안준호 목사	실무본부장 김병목 목사	사무총장 김진태 목사	제1부사무총장 김석중 목사	제2부사무총장 최연범 목사	서기 김동현 목사	회계 함동주 목사	부서기 박인규 목사	부회계 이재웅 목사
감사 이성수 목사	감사 강진정 목사	천안시 대표회장 안익상 목사	아산시 대표회장 김병완 목사	당진시 대표회장 우경식 목사	서산시 대표회장 최정희 목사	태안군 대표회장 김중남 목사	예산군 대표회장 백돈걸 목사	홍성군 대표회장 함동주 목사	서천군 대표회장 전용호 목사	청양군 대표회장 김동원 목사	부여군 대표회장 방요길 목사	공주시 대표회장 김석중 목사	
논산시 대표회장 김인호 목사	금산군 대표회장 신동성 목사	천안시 대표본부장 안병찬 목사	아산시 대표본부장 김수홍 목사	당진시 대표본부장 김성환 목사	서산시 대표본부장 소대영 목사	공주시 대표본부장 이재우 목사	태안군 대표본부장 김형철 목사	예산군 대표본부장 김영복 목사	홍성군 대표본부장 이문용 목사	서천군 대표본부장 한철희 목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25년 부흥사회

2025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임·회원 명단

대표고문 조용목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전임총회장 김상용 목사 (창주중앙순복음교회)	전임총회장 유봉수 목사 (은혜와사랑교회)	전임총회장 배진기 목사 (안디옥교회)	전임총회장 진등용 목사 (은양은혜와진리교회)	전임총회장 김용덕 목사 (영동제일교회)	전임총회장 최광덕 목사 (일산은혜교회)	전임총회장 이창계 목사 (진부제일교회)	전임총회장 김인규 목사 (은혜와평강교회)	전임총회장 김인찬 목사 (청신교회)	전임총회장 김양인 목사 (전주은혜와진리교회)	전임총회장 임용재 목사 (신정순복음교회)	전임총회장 신재영 목사 (새김전교회)	전임총회장 김병목 목사 (금산순복음교회)	전임총회장 김영준 목사 (갈릴리크소망교회)	전임총회장 정부용 목사 (대림별빛교회)	전임총회장 엄기철 목사 (은혜와인양교회)	전임총회장 김희태 목사 (간현교회)	전임총회장 김기진 목사 (재천순복음영문교회)
회장 김건수 목사 (재주한마음교회)	수석부회장 조길수 목사 (순복음은혜교회)	부회장 김바울 목사 (순복음진리교회)	부회장 임형순 목사 (순복음아멘교회)	상임위원 오승욱 목사 (천안서복교회)	상임위원 황용연 목사 (은혜와평강교회)	상임위원 정석현 목사 (명감교회)	상임위원 백영자 목사 (녹동순복음교회)	상임위원 조병희 목사 (기성순복음교회)	상임위원 김종연 목사 (의정부은혜교회)	상임위원 오세준 목사 (순복음참좋은교회)	상임위원 조은혜 목사 (순복음은혜사랑교회)	상임위원 정광호 목사 (등문순복음교회)	상임위원 윤혜영 목사 (순복음주인교회)	상임위원 조선남 목사 (대림별빛교회)	상임위원 김병호 목사 (순복음행복교회)	상임위원 박홍렬 목사 (오성사랑교회)	상임위원 김연옥 목사 (행복한선교교회)	상임위원 김명주 목사 (순복음열방교회)
실무부총무 정환무 목사 (사라이넘치교회)	서기 성기찬 목사 (동울산순복음교회)	재무 육보애 목사 (소망영광교회)	회계 김남수 목사 (밝은빛교회)	감사 최남성 목사 (동강순복음교회)	정회원 윤성수 목사 (진주은복교회)	정회원 권택선 목사 (순복음하은교회)	정회원 홍연자 목사 (사랑과평화교회)	정회원 최승수 목사 (순복음소망교회)	정회원 주창민 목사 (순복음별빛교회)	정회원 우광덕 목사 (선한목교회)	정회원 기호선 목사 (괴산순복음교회)	정회원 이형은 목사 (은혜교회)	정회원 황연선 목사 (순복음빛있는교회)	정회원 예정희 목사 (예수사랑교회)	정회원 김희자 목사 (새로외지교회)	정회원 조미숙 목사 (주님의은혜교회)	정회원 박은정 목사 (엘림교회)	정회원 안병찬 목사 (순찰아름다운교회)

문의 회 장 김건수 목사 HP : 010-3698-5764
상임총무 조은혜 목사 HP : 010-5649-5121

수필



지향 전오 경기여류문학회 회장

문학과 세상2000, 문학과 비전2007 수필동단 전오 시와 수필집 '아름다운동행' 가족글모음 '별초롱꿈 초롱' 수원고원초등학교 교장으로 정년퇴임.

우리 집에 숨어든 빨치산

"하나님이 도와서 너는 지금 살아 있는 거야, 죽을 고비를 넘겼으니 명은 길 것이다."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신 어머니께서는 생전에 가끔씩 나에게 말씀하셨다. 1950년 6.25가 터진 후 4개월 만인 11월에 태어난 나는 사변동이었다.

아버지께서는 지금의 직업이라든 민방위 대장급인 민병중대장이라고 하셨다. 우리 가족은 그 시대에는 보기 드문 거실이 있는 일 본식 큰 가옥인 중대장 관사에서 살았다. 전쟁 중인 그 때에 낫에는 지리산에 빨치산들이 숨어 있다가 밤이 되면 지리산 아래 우리 동네로 내려와 총구를 들이대며 마을 사람들의 곡식과 가축을 마구잡이로 쓸어들었다. 가끔은 동네사람들에게 탈취한 곡식 등을 남자들에게 짊어지게 해서 산으로 끌고 가기도 했다. 밤이 되면 먹을 것을 탈취하기 위해 마을로 내려와 주민들에게 온갖 만행을 저지르는 빨치산들은 하루 속히 전멸시켜야 할 골치 아픈 바이러스 같은 존재들이었다.

드디어 국군들이 빨치산 전멸작전을 실시하였다. 그날 밤도 어김없이 빨치산들은 마을로 숨어들어 주민들의 재산을 마구잡이로 탈취하고 남자들에게 짊어지게 하려고 집을 꾸리고 있었다. 특별히 민병중대장 집이라고 우리 집부터 들이닥쳐 이것저것 쓸어 모으고 있을 때, 국군들이 마을을 포위하고 항복하면 살려주겠으니 지금 마을에 숨어있는 빨치산들은 밖으로 나와서 항복하라는 확성기 소리가 마을을 뒤덮었다. 그러나 빨치산들은 생명줄인 양식을 포기할 수 없어서인지 항복하지 않고 마을사람들을 인질 삼아 야군에게 대항하며 위험한 총격전으로 사태가 악화되었다.

총을 맞으신 어머니

빨치산과 야군의 총격전으로 총알이 날아다니는 위험한 상황에서 어머니께서는 갓난아기인 나를 안고 공포에 떨며 숨죽이고 있었

다. 그 때, 빨치산 한 명이 어머니가 계시는 안방으로 군화발로 들어닥쳤다.

나를 안고 낮게 엎드린 어머니 품에서 아기는 무섭고 답답하니 울기 시작했다. 빨치산이 아기를 달래라고 재촉을 하여 젖이라도 물려서 울음을 그치게 하려고 막 젖을 물리는 순간 어머니는 유탄을 맞고 말았다. 그 총알은 젖을 물고 있던 나의 머리카락을 지나 어머니의 젖가슴을 스치고 팔을 관통하여 나갔다. 총을 맞은 어머니의 팔에서는 피가 팔팔 쏟아지고 아마도 나는 피범벅이 되어 아수라장이 되었을 것이다.

함께 있던 빨치산은 어머니의 총구멍을 내 가지귀로 틀어막으며 "늙은 호박, 늙은 호박 어디 있어요?" 하면서 늙은 호박을 찾아 속을 파내서 양쪽 총구멍에 막아 지혈을 해서 응급처치를 했다고 한다.

총소리가 잦아들고 사태가 끝날 무렵 빨치산은 도망치듯 밖으로 나가며 내일아침 쪽을 내 방안에 가라고 당부하고 사라졌다고 한다.

다행히 어머니는 다음날 병원으로 이송되고 총알이 지나간 팔을 대수술하시므로 생명을 구하게 되었다. 구사일생으로 생명을 구하신 어머니께서는 두 딸을 교사와 목사로 성장시키시고 84세까지 이 땅에서 잘 지내시다 소천하셨다.

내가 자라면서 어머니의 유품 패인 총 자국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장난을 칠 때면 그때마다 나의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머리카락 사이로 지나간 총알이야기를 들려주셨다.

"하나님이 도와서 너는 지금 살아 있는 거야, 죽을 고비를 넘겼으니 명은 길 것이다" 라고.

생각만 해도 오싹하는 절대 절명의 순간이 아닌가? 총알이 0.001mm라도 아래로 지나갔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지금 생각해 보니 어머니의 말씀처럼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다.

2차 대전 참전용사 아버지

우리 가족은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직접 참여했다.

아버지께서는 일제 강점기 시대에 대한민국 청년이라는 이유로 일본에 강제 징병으로 끌려가 2차 대전에 참전하신 참전용사이시

다. 남양군대에서 일본군에 의해 1년 이상을 지옥판 노동과 극심한 굶주림으로 생사의 기로에 처하다 포로로 잡혀서 하와이 포로수용소까지 갔다. 고향에서는 이미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묘를 만들고 제사까지 지냈다고 한다. 기적적으로 살아서 전쟁포로가 되신 아버지는 다행히 '전쟁포로 규정'에 의해 우리나라로 돌아오실 수 있게 되었다.

6.25 사변 때는 민병중대장으로 직접 총을 들고 생명을 걸고 지역과 마을을 수호하는 민방위 사명을 완수하셨고 어머니께서는 중대장 가족이라는 이유로 총까지 맞으셨다. 나는 태어나지마자 총알이 머리를 스쳐지나가는 절대 절명의 위기에 처하기도 하였다. 갓난아기인 나를 포함한 우리 부모님까지 우리 가족 모두는 참전가족이다.

'반공을 국시의 제 1로 삼고' 애국가 DNA 그래서일까? 나의 나라사랑의 마음은 유난스러움이 있다.

작금의 이 나라를 보면서 이 지경까지 끌고 온 정치 지도자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려오는 아픔을 느낀다. 우리 부모님, 아니 그 선대의 수많은 호국영령들이 어떻게 지켜낸 이 나라를 낳조된 역사와 왜곡, 편향된 사상에 속고 물들어 어리석기 그지없는 무지한 사상으로 나라가 양극화 되는 극한 상황까지 몰고 온단 말인가!

6.25 사변을 남한에서 일으키고 남한에서 북침했다고 어린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 전교조와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적단체들 때문에 우리의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이 낳조된 역사를 배우고 그렇게 믿고 있다.

지금도 이 나라를 향해 미사일을 쏘아대고 오톨풍선을 날려 보내고 오직 남침만을 노리는 무지막직한 공산당, 대한민국 기요와 드라마를 정취했다고 어린 청소년들을 군중들 앞에서 직접 총살하는 그런 공산당을 지지하고, 자유와 인권, 생존권마저 빼앗긴 불쌍한 동포들이 굶어 죽는데도 식량도 주지 않으면서 핵과 미사일에 모든 재정을 쏟는 무지막지한 김정정은 일당, 짐승만도 못한 저들을 찬양하며 그들과 손을 잡고 사회주의에 동조하는 이적단체의 대표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의 국회의원이 되었다. 그 사상에 동조하

고 박수를 치는 국민들 또한 적지 않다고 하니 너무나 기가 막혀 통곡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다.

내가 초등학교 시절에는 '반공을 국시의 제 1로 삼고' 라는 국가관을 상징하는 혁명곡악제 1항을 달달 암송하며 자랐다. 대한민국 교육제도는 초등교육 때부터 반공, 방첩의 반듯한 애국자의 DNA로 성장시켰다.

꿈을 포기한 젊은이들

그러나 **지도자가 정권을 잡은 이후부터 반공, 방첩이라는 말이 없어지므로 이 나라는 더욱 난장판이 되었다. 이념과 사회는 개방되었다지만 국민들의 마음은 양극화 되어 끝도 없는 갈등으로 질실할 것처럼 답답하기만 하다.

민주, 개혁, 진보를 말로만 외치는 세력은 오히려 민주를 파괴하고 개혁, 진보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

경제는 침체되고 정치는 무기력하니 불확실한 미래를 보며 젊은이들은 결혼을 포기하고 결혼한 젊은 부부는 자녀를 포기하여 건국 이래 가장 심각한 인구감소의 위기까지 겪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젊은이들은 꿈을 잃었다고 한다. 아예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화합과 갈등융합을 진보의 기치로 든 자들이 매일 거짓과 근거 없는 선동으로 갈등을 더욱 조장하고 민생은 뒷전, 오직 자신들의 밥그릇 싸움으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당리당략, 사리사욕의 방황으로만 치닫고 있으니 도대체 그들에게 나라를 맡긴 국민들의 의식이나 하는 정치인들인지?

누군가는 말했다.

"정치인들이 국민의 수준을 도무지 따라가지 못한다."고

우리들은 언제까지 국민을 무시하는 말도 안 되는 이 사태를 구경만 해야 하는 것인지? 이들의 이윤배반적인 결과는 오롯이 우리 국민들의 몫이 되어 삶은 더욱 힘들어지고 정치인들의 난장판을 구경해야 하는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투성이로 패배감만 깊어진다. 이렇다 진정 베트남의 전철을 밟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다.

애 나의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는

대한민국 역사상 사심 없이 나라와 국민만을 위해 일한 지도자다운 대통령이 몇 분

이나 계실까? 다행히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을 건국하신 이승만 대통령과 가난의 굴레를 벗고 새벽종을 울리며 경제를 일으킨 박정희 대통령, 이분들의 사생결단의 애국심과 지도력이 있었기에 게나마 이 나라가 지금까지 무너지지 않고 세계 10대 강국의 위치까지 왔다고 생각한다.

물론 현명한 우리 국민들의 피와 땀이 초석이 되었다. 지금의 대통령 또한 이 분들의 뒤를 이어 이 나라를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빛내고 국방, 외교, 경제, 문화, 예술, IT 강국으로 부상시킨 지도자로 역사에 길이 남아주시기를 기대한다. 이번 경총사에서도 인권을 유린당한 불쌍한 북한 주민들을 하루 속히 구해서 자유민주주의의 체제 안에서 굶주림

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인간의 존엄성을 되찾아 주어 진정한 인간다운 삶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가슴 뭉클한 메시지를 발표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나라가 우선 힘 있고 안정되어 공산주의자들의 손에서 핍박 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품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어야 한다. 할짓도 굶주린 가엾은 북한 주민을 하루 속히 구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하고 바른 역사관과 국가관으로 단결해야만 한다.

이 나라를 생각하면 저절로 손이 모아지고

그동안 미래세대인 우리 자녀들을 빚더미에 올려놓고 막 태어난 신생아까지도 빚쟁이로 만들어 경제를 파탄 낸 *정권, 지나고 보니 그들이 권력을 남용하여 자신들의 배만 불리고 국민들의 피땀인 세금을 자기 가족들의 호의호식과 이익집단이면 무슨 이름을 붙여서라도 세금을 퍼 주어 국고를 횡령한 사실들이 하나씩씩 밝혀지고 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 배신감에 가슴이 떨린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갚아야 할 국가채무가 천조원이 넘었다고 하니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과연 팔수룩 꺾도 없이 밝혀지는 부정부패와 죄상들, 엄청난 죄를 짓고도 그 죄를 수사하는 검찰을 탄핵한다고 적반하장으로 떠들어대고 있다. 강도가 경찰을 심문하는 경우와 무엇이 다른가? 권력이 있는 자는 죄를 지어도 그냥 넘어가야 한다는 말인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은 후안무치한 작태에 할 말을 잃게 된다. 머리속에 온통 부정부패와 정권탈취 야욕으로 물든 사악한 사고방식을 가진 자들이 정부를 비방하며 무능대통령이라 프레임을 씌워 취임한 며칠 후부터 지금까지 앵무새처럼 탄핵만을 외치고 있다. 거기에 더가짜뉴스를 만들어 일파만파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다. 수준미달의 범죄자들에게 투표해서 나라를 맡긴 일부 국민에게도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다. 권력을 악용하여 죄를 범하고 수사하는 기관과 정부를 검찰독재라고 몰아붙이는 저들, 하루속히 올바른 법의 심판을 받아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합당한 벌을 받게 해야 한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는 공명정대한 이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정부와 사법부에 간절히 부탁드리며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진정한 애국자들을 위해 손모아 기도를 드린다.

꿈과 비전을 이루는 행복한 주인공,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다행히 미래시대를 짊어지고 나갈 이 나라의 주인공인 청소년과 20대, 30대들은 나라사랑에 대한 국가관과 가치관이 바르게 정립된 반듯한 사고로 성장하고 있음에 게나마 감사하고 이 나라의 미래가 밝다는 생각이 다소 안도의 마음이다.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부정부패와 편법이 없는 공정과 상식의 나라로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풍요로운 삶이 보장된 사회, 삶의 질을 높여 자아실현을 이루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나라가 되기를 간구한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 손주들, 모든 이 나라의 후손들이 안정된 자유 민주주의 체제에서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펼쳐 소망하는 꿈과 비전을 실현하는 나라, 경제와 국방력으로도 북한 동포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강대국으로 발전시켜 속히 자유민주통일을 이루기를 간절히 손모아 기도드린다.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정권 탈취와 탄핵에만 열안이 되어 매일 대통령의 탄핵을 진행하겠다며 국민을 불 안으로 몰고 가는 저 흉악한 악의 도모가 허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선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미래 세대가 공정과 상식의 나라에서 진정한 자유와 풍요를 누리며 행복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루 속히 자유통일의 물결이 북한 전역을 뒤덮어 남북한 모든 국민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자유민주주의의 국가, 합력성선의 대한민국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적 사명 감당, 국가의 안정과 자유롭고 바른 신앙생활 최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2024 한국교회의 밤' 개최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이하 한기총)가 지난 12월 20일(금) 오후 5시 롯데호텔서울 크리스탈볼룸에서 '2024 한국교회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1부 예배, 2부 축하 메시지, 3부 시상식, 4부 만찬과 감사 순서로 진행됐다. 1부 예배는 준비위원장 공동회장 정학재 목사의 사회로,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의 환영사, 공동회장 이현숙 목사의 대표기도, 명예회장 박홍자 장로의 성경봉독, 소프라노 정찬희 교수의 특별찬양,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의 설교, 특별기도, 명예회장 김용도 목사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이러한 영향력을 전달해 왔다"며 "세속화·유물론·무신론·동성애 등 악한 시대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개혁주의적 신앙고백의 토대를 두고 대한민국의 교회를 잘 이끌어 나아가고 있다"고 했다. 정 목사는 "지금은 우리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한국교회의 밤을 기점으로 한기총이 주어진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해서 국가의 안정과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 일에 앞장서서 행하는 모두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낮은데로 임하소서"(빌 2:6-11)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소강석 목사는 "한국교회가 위함에 빠질 때, 연합기관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겠다. 이 모임이 우리를 비우고 하나로 연합하는 모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진 특별기도 순서에선 공동회장 안이영 목사가 "대한민국을 위해" 공동회장 조윤희 목사가 "한국교회와 한기총을 위해" 공동부회장 류홍중 목사가 "다음세대들의 신앙회복을 위해" 공동부회장 송미현 목사가 "세계복음화와 선교사들을 위해" 각각 기도했다. 2부 축하 메시지 순서는 MTN 온인주 아나운서의 사회로, 2024년 한기총 영상시청, 사무총장 김정환 목사의 내빈소개,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샘 신 목사·뉴욕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양은식 목사의 축하영상, 축사와 격려사 순으로 진행됐다.

격려사를 전한 전임대표회장 엄기호 목사는 "보수 신앙과 신학으로 무장한 한기총은 교회를 향한 세속화를 막아내고, 항상 하늘님 중심 신본주의 정신을 되새겨야 한다"며 "신본주의 정신으로 한국교회를 지키며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의 귀한 사역과 역할을 잘 감당할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공동회장 심하보 목사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 준비를 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랑과 비전을 기억하고 서로를 더 사랑하고 섬기는 삶이 되길 소망하면서 2025년에는 더욱 풍성한

은혜의 해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3부 시상식은 감사패 전달, 명예회장 윤항기 목사의 축하공연, 수상자들을 위한 공동회장 윤광모 목사의 특별기도, 공동회장 이용운 목사의 만찬기도, 케익커팅식, 기념사진 촬영 순서로 진행됐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업의 수익금 중 일부는 어려운 교회를 돕고 선교사업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장철훈 회장 크리스찬 사업가 베스트랩 대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짐바브웨라는 먼 타국에서 금광을 채굴하여 새로운 제련 공법으로 알찬 열매를 거둬가는 크리스찬 사업가 베스트랩 장철훈 대표(신당동 소망교회 안수집사)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신앙의 삶을 고백했다. CCTV 사업을 하고 있던 장철훈 대표는 사업차 지난 2018년 10월 지구 반대편 아프리카 짐바브웨를 방문했는데, 당시 짐바브웨는 독재자 무가베로 유명한 곳이었으나 정쟁 끝에 무가베가 하야하고 민주주의 선거가 처음으로 실시되는 등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한 시기였다. 그곳에서 대통령 조카의 다리 치료에 도움을 준 게 인연이 되어 이후 대통령에게서 직접 현지 금광을 살 기회를 얻게 되었다. 뜻하지 않게 금광사업으로 이끌림을 받았고 CCTV사업의 실패로 어려워진 상황을 극복하려던 터라 경제적으로도 매우 좋지 않았다.

그런 그에게 금광사업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꿈같은 사업이라 생각되어 채굴을 위해 매달 약 1억 5천만 원의 비용을 동원하여 밀 빠진 독에 물 붓듯 가족·친지·지인들의 돈까지 총 100여 원 가까이 투자했다. 초반에는 금광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신감을 잃어 갔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며 연구와 노력을 거듭한 끝에 한 해 두 해 경험과 기술력

이 쌓이면서 거의 전문인이 되어갈 무렵 조금씩 수확량도 늘어나고 드디어 위기를 이겨내고 지난 3월 사업 6년 만에 드디어 흑자 전환을 이뤄냈다.

사업의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들이 만나게 해주셨고 제련기술의 변화로도 수확량을 무려 5배나 늘릴 수 있는 습식제련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짐바브웨 3개의 광산과 밀링센터에는 현재 직원이 약 70여 명이 있으며,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다. 장 대표는 이들의 학비를 전액 지원하기도 했으며, 몇몇 학교에는 자비결연을 맺기도 했다. 증축을 위한 사업비를 제공하는 학교도 있다. 또한 직원들을 위한 병원시설을 짓고 검진비용도 지원하고 있다.

장 대표는 사업실패로 삶을 포기하려 했던 때 다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났고, '성공한 사업가'를 넘어 전문인 선교사로서의 새 삶을 준비하게 되었다. 그를 변화시켰던 것은 찬양이었다. 한 직원의 복음성가



찬양에 마음이 감동되어 그 자리에서 눈시울이 붉어지며 하나님의 위로가 가슴에 가득 찼다.

장철훈 대표는 재정이 넉넉지 않을 때부터 선교를 이어왔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도 주변을 돕는 일만은 멈추지 않았다. 섬기는 신당동 소망교회에서는 교회 재정에 큰 도움을 주며 오직 선교에만 전력하는 교회가 되도록 돕고 있으며 또한 경찰후원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경찰선교에도 힘쓰고 있다고 한다.

기독교언론 권익보호 앞장 언론발전 매진

한국기독교언론협회 제20차 정기총회 개최

한국기독교언론협회는 지난 12월 20일(금) 오전 10시 30분 서울 마포 기하성 총회회관 회의실에서 제20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회장에 뉴스앤넷 발행인 노근재 목사를 연임시켰다.

1부 예배는 총무 유현우 국장의 사회로 부회장 김성태 목사의 기도, 기하성 총회서기 김광중 목사의 말씀과 축도 등의 시간을 가졌다.

김광중 목사는 '너희가 더욱 힘써'란 제하의 말씀에서 "믿음 속에 열매가 없으면 한국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믿음과 덕, 지식과 절제, 인내와 경건, 우애와 사랑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순종하면 지역을 살리고 한국을 살리고 교단과 가정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임할 줄 믿는다"며 "사랑에 더욱 힘쓰는 기독교언론협회가 되길" 당부했다.

2부 정기총회에서는 감사 보고, 회계 보고, 회칙 개정 등을 처리하고 정통개혁신문과 분혜월드, 기독교한국신문, 기독교라인, 갈라생명, 뉴스앤C 등 6개 언론을 새 회원사로 가입시켰다.

회장 선거에서는 4인 전원위원을 구성해 회장을 선임했다.

회장 노근재 목사는 "한국기독교언론협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쳐 나가겠다"면서 "언론을 통해 한국교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노 회장은 특히 "언론협회 20주년을 기념해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라면서 "회원사들을 위한 교육과 연수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며 함께 발전할 수 있게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04년 창립한 한국기독교언론협회는 현재 교회연합신문, 기독교신보, 기독교일보CDN, 기독교일보, 기하성총회신문, 뉴스앤넷, 목양신문, 복음신문, 새누리신문, 월드미션신문, 크리스찬월드리뷰, 크리스찬투데이, 풀가스펠뉴스, 하야방송, 한국교회공보, 한국기독교일보 등 기독교인들이 회원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날 선출된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노근재(뉴스앤넷 발행인) △부회장 박한근(목양신문 국장), 조성권(기하성 총회신문 국장) △총무 유현우(기독교일보 CDN 국장) △감사 이준숙(월드미션 국장).



굿네이버스, 2024년 자립지원사업 성과

자립준비청년 실태와 보호 단계별 자립지원사업 성과 공유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는 지난 12월 16일(월) 오후 2시 서울 중구 페럼타워 3층 페럼홀에서 '2024년 굿네이버스 자립지원사업 성과공유회: 자립의 여정'을 개최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매년 5천여 명의 보호대상아동이 발생하고, 매년 2천 명이 넘는 아동은 보호가 종료돼 사회에 진출하는 자립준비청년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굿네이버스는 국내 자립준비청년의 실태를 소개하고, 보호 단계별 자립지원사업의 성과를 알려 자립지원 체계 발전 방향을 도모하기 위해 이번 성과공유회를 기획했다. 특히, 성과공유회는 각계 전문가와 자립준비청년 당사자, 가정위탁부모가 참여해 직접 자립 지지자와 당사자로서의 이야기를 전했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정선옥 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 전공 교수의 발달단계 및 발달영역을 포괄하는 자립지원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강연에 이어 굿네이버스의

보호 단계별 자립지원사업 사례를 발표했다. 사례는 굿네이버스 울산광역시정위탁지원센터의 '나만의 자립 플랜: 맞춤형 자립학교', 광주영성원의 '내일을 설계하는 자립 기술: 드림하이 프로젝트', 굿네이버스 경상남도자립지원전담기관의 '혼자에서 함께로: 일상을 되찾는 연결고리', 굿네이버스 인팩트전략팀의 '함께 나누는 자립: 우리사이 프로젝트', 굿네이버스 전북특별자치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자립준비청년 당사자의 '굿네이버스와 함께한 자립의 여정' 순으로 발표했다. 이어지는 토크콘서트는 '희망미래 그리기: 함께 만들어 가는 자립공감사회의 비전'을 주제로 김하나 브라더스키프 대표가 사회를 맡고, 이상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동가족정책 연구센터장, 박주희 재단법인 청년재단 사무총장, 김경선 위탁부모 대표, 김민지 자립준비청년 대표가 참여했으며 성과공유회는 굿네이버스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되었다.

가족세트전도

박영수 목사 // 평내순복음교회,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원장

성탄에 붙이는 영가 (2024년 12월 25일)

하늘의 별 울러퍼지는 주의 음성 흐르는 주의 영광의 빛이시라. 야, 크고 놀라운 사랑의 신비여 온 우주에 진동하였다. 주의 보좌 천군천사여 아기예수이 땅에 오심을 노래하라. 오, 그대 마음이 청결한 자여 들란의 작은 목동이 되리라. 마음이 가난한 자여 아기 예수 마음에 모심이여. 오, 그대 거룩한 옥합이여 나 스스로 황금, 몰약, 유향의 묶이 되리라. 이윽고 순결함되어 마음의 마릿줄 눈물의 향유되었네.

이제 우리 모두 찬란한 사랑의 빛, 주의 영광의 빛 내 마음에 받아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의혹이 있는 곳에 신뢰를, 위로 받기 보다는 위로하게 하시며 사랑 받기 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아, 베들레헨 말구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사랑을 위하여 이 땅에 한 손이 예수님의 향기로 피어나게 하소서. 이 땅에 한 손이 예수님의 향기로 피어나게 하소서.

구원의 신비여 성탄을 노래하자 주께 영광돌리자. 야! 이 땅에 은혜와 진리로 오신이여 이 몸 작은 동방박사 세사람 되어 주어진 그의 길 따라 사랑의 길 주의 길을 걸으리. 나 지금 여기에 있어 겸손이 말구유 되어 드리리라. 보라 하늘에는 영광이시여 땅에서는 평화로 오신이에게

전도자의 발걸음은 별과같이 빛나리라. 전도자의 집은 이 땅의 집이 아닌 하늘의 집. 금은보화로 만들어진 천국이다. 가족세트전도 총재 박영수 목사는 서울여 노숙자들에게 목이 터져라 예수천국복음을 외쳤다. 스텝 강상수 목사는 400명분의 딱거리 떡을 제공하고 아름다운 시간이었다. 가족세트전도 대표총재 박영수 목사는 세계가 나의교구다 외친 웨슬러처럼 한국강도 뿐 아니라 전세계에 이르기까지 영접기도로 영혼을 구원, 세계는 그의 교구인 것이다.

가족세트전도 사무총장 이수 교수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10 031592-1691, 0103730-2573



생명나눔 약속하며 은혜 나눠

11월, 전국 교회 성도 487명 장기기증 희망등록

사람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사장 박진탁 목사, 이하 본부)는 지난 11월, 전국 9개 교회에서 진행된 생명나눔예배를 통해 487명의 성도가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참여하며 생명의 불씨를 밝혔다고 전했다.

지난 11월 10일(주일) 서울 강북구 번동에 위치한 반동제일교회에서 창립 60주년을 기념하는 생명나눔예배를 드렸다. 지난 1964년 창립 이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눔의 가치를 실천해 온 반동제일교회는 생명나눔예배를 한 주 앞두고 교회의 모든 장로가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참여하는 등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웃을 향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낼 준비를 마쳤다.

생명나눔예배 당일, 반동제일교회에 방문한 본부 상임이사 김동업 목사는 "교회 창립 60주년을 기념



하는 뜻깊은 날에 생명을 살리는 사역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며 "앞으로도 반동제일교회와 성도들이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따뜻한 손길을 통해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 외에도 담양고서교회(곽금철 담임목사), 부산명성교회(황은규 담임목사), 서귀포강변교회(최영남 담임목사), 예수사랑교회(이성복 담임목사), 예수사랑교회(지성태 담임목사), 우리한신교회(이성철 담임목사), 제자교회(황성건 담임목사), 하늘비전교회(오영택 담임목사)가 생명나눔예배를 드리며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건넸다.

본부 이사장 박진탁 목사는 "지난 11월, 생명나눔 운동에 헌신한 한국교회와 성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며, "한 해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며 생명을 나누고 이웃을 섬기는 거룩한 사역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이 더해지기를 소망한다."라고 말했다.

월드뷰티핸즈, 쪽방촌 주민들에 '성탄절 밥사랑잔치' 열어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가장 낮고 낮은 곳으로 오신 날"

(사)월드뷰티핸즈(회장 최에스터)와 (사)해돋는마을(이사장 장현일 목사)은 장석교회(담임 이승현 목사), 암재활전문기업 비오신코리아(주)(대표이사 강종욱)와 함께 지난 12월 11일(수) 엘드림노인대학에서 쪽방촌과 독거어르신 초청 '성탄절 사랑의 밥사랑과 선물전달식'을 진행했다.

장현일 목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가장 낮고 낮은 곳으로 오신 날"이라며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처럼 이 땅에 진정한 살림의 평화가 있기를 기도하며 성탄의 빛이 외롭고 힘든 쪽방촌과 독거어르신들께 희망의 빛,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세원 대흥동장은 "특별히 장현일 목사님께서 1



인구가 64%가 넘는 이 지역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사랑의 선물전달과 말벗되기 등, 사랑나눔으로 섬겨주셔서 감사하다"고 축하했다.

특히 이날 행사는 장민혁 사무총장(월드뷰티핸즈), 장민욱 사무국장(해돋는마을), 최세진 영양사, 김은희 조리사, 구윤 봉사단장 외 이강학 최세연 전혜숙 조소희를 비롯한 많은 자원봉사자가 참여해 밥나눔사역과 거동 불편한 어르신들께 사랑의 선물을 배달했다.

행정안전부 1365와 보건복지부 VMS 자원봉사인 증기관인 (사)월드뷰티핸즈와 (사)해돋는마을은 매일 밥나눔사역과 함께 엘드림노인대학을 통해 시스기 실버영어 전문국어교실 등 전문강의를 초청하여 다양한 강의와 우울증 및 치매예방, 고독사 제로를 향한 고독스프로젝트를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하나님이 주신 천년초 식품이 간헐적 단식에 최고의 식품입니다



천년초의 효능

1)폐활성물질

- 1 손상된 신체조직복구(각종 염증을 다스림)
- 2 암세포 성장억제, 각종 암의 예방(취실현) (*고려대학교 송용석 교수님 임팩으로 세계특허)

2)플라보노이드

- 1 성인병의 주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
- 2 노화억제, 항산화, 항염, 항암예방(원광대연구논문)
- 3 고혈압, 저혈압, 당뇨, 고지혈증, 백내장, 급성간염에 탁월(경희대연구논문)
- 4 뇌혈관계 및 동맥경화 기능에 탁월, 뇌세포가 살아남(학계보고)

3)타키펜올린

- 1 퇴행성 관절염, 골다공증, 관절염, 통풍, 오십견, 류마티스관절염, 간직성 척추염(줄기를 붙여도 탁월) (전북대연구논문)

4)호흡기, 위

- 1 위염, 위궤양에 탁월(서울대연구논문)

5)사포닌

- 1 면역력 증가

6)칼슘

- 1 홍화씨의 24배, 멸치의 9배, 우유의 50배, 감의 343배, 딸기의 240배, 머루의 600배 들어있음 (호서대연구논문)

7)식이섬유

- 1 타식물(과일류, 채소류, 곡류)과 비교불가(호서대연구논문)

8)불포화 지방산

- 1 고등어의 3배 오메가3, 6 함유로 식품중 가장 많이 들어있음

9)비타민C

- 1 알로에보다 8배, 오렌지보다 25배, 사과보다 48배, 딸기보다 11배로 식품중 가장 많이 함유(전북대연구논문)

10)기타성분

- 1 단백질, 탄수화물, 화분, 지방, 아미노산, 마그네슘 등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음이 연구를 통해 발표됨.

11)아토피, 피부질환 개선에 탁월한 효과

- *간, 폐, 위, 기관지, 대장, 췌장, 신장, 자궁, 갑상선, 심장, 유방에 효과입증

-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천년초를 섭취하시면 큰 도움이 됨.

- *유방:중기, 암 부위에 마늘처럼 천년초를 찧어서 환부에 붙이면 효과가 뛰어나.

*본제품은 식약처(성분검사)를 필함

*천년초는 인체에 무해하며 독성을 지니지 않음(서울대학교 천연물과학연구소 발표)



목포시내산교회 | 본사 대표 방철성·조경숙

(목포시내산교회 안수집사·권사 부부) 010-2731-5594, 010-9884-5594

계좌번호 기업 010-9884-5594(조경숙) 농협 176112-51-020809(조경숙)

믿음으로 생각 깊은 곳으로

이역주 목사 //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칼빈대 전 교수, 대성교회

복권 당첨자들의 비극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143억 원짜리 복권에 당첨됐던 한 남성이 10년 만에 빈털터리가 됐다는 소식이입니다. 스코틀랜드에 사는 37살의 마이클 캐롤씨는 지난 2002년 19살의 나이에 970만 파운드, 요즘 환율로 143억 원짜리 복권에 당첨됐습니다.

하루아침에 톱스타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된 이 청년의 손은 갑자기 커졌다고 합니다. 당첨금의 절반인 75억 원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나눠주고 고급 주택을 사들였으며, 생활은 그의 난폭 운전만큼이나 무절제했다고 합니다.

도박으로 16억 원을 날렸으며, 마약과 술, 매춘에 빠져 부인과는 이혼했고 급기야 지난 2006년에는 10대들을 흥기로 위협한 혐의로 교도소까지 들락거렸다고 합니다.

벼락 맞을 확률보다 낮은 횡재를 했던 캐롤 씨는 '복권 패륜아'라는 여론의 비난을 받는 처지가 됐고 결국 복권 당첨 10년 만에 파산하고 실업 급여를 받는 처지로 전락했습니다. 이 사람은 최근 술과 마약을 끊고 과거 공장에서 주급 35만 원을 받고 상품 포장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전에 '벼락부자였을 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하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거액 복권 당첨자에게 해주고 싶은 충고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행운을 빌지만 누구도 믿지 말고 가족들에게 잘 하라. 그 때(복권 당첨 당시)만 해도 큰 집을 사고 동화같은 생활이 영원할 줄 알았다"고 후회했다고 전합니다. 일확천금, 복권당첨, 그리고 로또의 축복대신 저주는 또 있습니다.

중년의 김씨는 2007년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됐습니다. 세금을 빼고 받은 돈이 18억 원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인생역전, 성공이었습니다. 김씨는 가족들에게 당첨금을 나눠주는 등 얼마동안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그러나 운영하던 주점을 그만두고 주식투자로 많은 돈을 잃었습니다. 게다가 사기까지 당하면서 당첨금을 모두 날렸다고 합니다. 생활고에 가정불화를 겪으면서 부인과 자녀와도 별거 중에 우울증까지 찾아왔으며, 결국 어느 목욕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별안간 큰 부자가 된 이들의 공통점이 행복했다보다는 불행하다는 이야기를 더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딤후 6:17-19)

초대시

전해수 // 은혜와진리교회 권사

하나님과 술래잡기 하실래요?



꼭 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친구들은 숨고 땀그머니
홀로 남으면 눈을 등굴리고
귀를 쫓긋하며 친구들의 흔적을 찾느라
숨을 죽이나 마음은 콩닥콩닥.

숨은 이도 찾는 이도 숨죽이는 시간...
눈치 못하게 외락 찾아낼 때
그 비명과 그 희열감이
얼마나 통쾌하고 좋았던지
어린 시절의 술래잡기
생각만 해도 얼굴 가득 번지는 미소.

일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오
일을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라(잠 25:2)(벧 2:9)
하나님도 나와 술래잡기를 하길 원하시는구나~
희노애락 속에 당신 뜻을 감추시고
"찾아내거라 내가 숨을께... 술래는 항상 너다!"

환난 속에 감추인 비밀스런 이야기.
고난 속에 넣어두신 수많은 보석들.
술래 되어 말씀의 숲속에서 의미를 찾게 하는 주님...
홀로... 직접... 하나님을 찾아낸 기쁨 얼마나 뿌듯하고
좋았던가!
이거였구나... 이 기쁨 누리길 원하신거야...
숨어있는 의미를 찾을 때 그곳에서 아버지를 만난다.
찾았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다!!!

귀를 쫓긋 눈을 등굴릴 때
내 눈높이에 맞추어 흘러놓은 사랑의 흔적들...
보혈로 씻긴 생명에게 주어진 특권으로
하나님과 술래잡기는 천국을 확장해 가는 놀이
이 세상에서 가장 재밌고 신나는 놀이

잠언 25장 2절 말씀을
묵상하며 나는 이렇게 날마다 주님과
술래잡기를 하고 있었음을 깨닫는다.
(전 7:14, 신 31:18, 신 29:29)

사설

2024년 성탄절을 맞으며

불의하고 불법한 불신의 세계를 다스리소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땅에서 벌어지는 온갖 전쟁과 난리의 소문을 다스려 주소서. 죽이고 죽이는 살육의 현장에서 예수님 오심을 찬양하게 하소서. 전쟁의 파탄으로 몰아 넣는 악한 영의 광란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창과 칼로 만든 전쟁 무기를 녹여 쟁기와 보습을 만들게 하소서.

불의를 몰아내고 정의를 세우시는 주님! 이 땅은 온통 불의가 판쳐 이제는 정의조자 모두 잊은 듯합니다. 힘으로 무쳐 날뛰는 세력들은 자신들을 마치 정의로 착각합니다. 불의로 하나된 무리들은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듯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정의가 무엇인지 만민들에게 보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한껏 주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 이 땅에는 증오와 화(禍)가 넘쳐서, 사랑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형제도 미워합니다. 우리 사회는 온통 증오 '편가르기'로 인해 적군만 남아 있습니다. 이 증오의 땅을 넘치는 주님 사

랑 능력으로 포근히 덮어 주소서. 생명의 복음을 주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 이 땅에서 종교의 이름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가짜 메시아, 가짜 선지자, 적그리스도가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미혹된 영혼들은 그들을 따라가므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생명의 복음으로 그들을 살리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교회와 가정을 세우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주님을 길이길이 찬양합니다. 악한 세력은 자신들과 반대의 근간인 가정과 교회를 공격합니다. 저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과 교회가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가정들이 건강히 번창하고, 교회들이 복음의 권세를 갖게 하소서.

성탄(聖誕)으로 오시고, 재림주(再臨主)로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영생을 주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오직 구원과 평강과 살림의 완성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물레방아만 돌고 도는 게 아니다. 세상도 돌고 돈다. 미쳐서 돌고 경쟁하다가 돌고 정신없이 돌고 돌아간다. 어제의 친구가 원수가 되기도 하고 어제의 사랑이 오늘날 마음으로 돌아버리기도 한다. 나라도 돌고 돈다.

'엄마 찾아 삼만리' 주인공은 이태리 소년 마르코 예가다. 당시 부국인 아르헨티나로 돈 벌러 간 엄마를 찾아 나선 이태리 소년 마르코의 얘기가 '엄마 찾아 삼만리' 예가다. 그렇게 잘 살던 부국 아르헨티나가 지금은 엘리트들이 쓰레기를 뒤져야 하고 한 때 남미의 유럽이라고 지칭되던 부국 아르헨티나가 빈국이 되듯이 나라도 돌고 돈다. 나라도 사정없이 정진 못처럼 만큼 빠르게 돌고 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선진국인 일본에 취업하려 일본으로 떠나는 한국인들이 많았다. 직장을 구하려 한국에 오는 일본인은 없었다. 10년 전의 얘기가. 그런데 사정이 바뀌었다. 지금은 우리나라에 취업하는 일본인들이 늘고 있다. 법무부 비자 발급 통계를 보면, 2014년 10월에 한국에서 구직과 관광취업(워킹 홀리데이), 전문 인력 관련 취업 비자를 갖고 있는 일본인은 모두 합

쳐 단 1명에 불과했다. 10년 전 얘기가. 그런데 2014년을 지나 지금 2024년 10월 현재 한국에서 취업 비자를 받은 일본인은 2,196명에 달한다.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서울지사 관계자는 '어렸을 때 일본에서 한국 드라마와 노래를 보고 들으며 한국어를 배운 이들이 직장에 다닐 나이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취업도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게다가 높아진 한국의 임금 수준, 오히려 떨어진 엔화 가치 때문에 금전적으로도 한국취업은 일본인들에게 매력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세상이 달라졌다.

1인당 소득도 한국이 이미 일본을 넘어섰다. 그래서 젊은 일본인들이 돈 벌려고 한국에 취업하고 있는 것이다. 옛날엔 한국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 출신들이 한국에서 직장을 잡았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다.

세상이 달라졌고 나라가 돌고 돌았다. 아무도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나온 말이 '내일 일은 난 몰라요'다. 한 시간 후의 일도 모르는 게 인간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래서 더욱 기도해야 한다.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편집고문: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
●발행 겸 편집인: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인쇄인: 배성환

●연락처: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504)027-0897
웹하드: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길 5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계좌: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25년 시무예배 및 신년하례식
제3회 실행위원회
일시 2025년 1월 6일(월) 오전 11시(시무예배 및 신년하례) (12시 점심식사, 13시 실행위원 회의)
장소 은혜와진리교회 안양성전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193 ☎(031)443-3731~2
참석 실행위원(정책위원, 총회임원, 지방회장), 각 위원장, 각 국장, 전임지방회장 ※ 점심식사 등 준비관계로 참석여부를 12월 20일(금)까지 총회본부(02-2675-5181~3)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G ASSEMBLIES OF GOD 예수교대한 총회장 목사 김영준 하나님의성회 총무 목사 오세준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나길 8 총회본부 TEL 02)2675-5181~3 Fax 02)2677-5181 http://www.aogk.org